

“개천에서도 용 날 수 있다”

무료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농산촌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청소년들과 농산촌 청소년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골짜기 산골 작은 마을에서 인재육성의 원력을 세우고 청소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남원 인월면 영선

사 주지 월공 스님. 스님은 농산촌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 수행을 통한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통한 것이고, 셋째는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그중 세 번째를 선택해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공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청소년 공부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 2008년 무렵 불사와 지장기도를 하던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이 오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 스님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실천을 결심했다.

작은 사골마을인 남원시 인월면에는 학교가 끝난 뒤 갈 수 있는 변변한 학원이나 도서관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도시 아이들과는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스님은 인월면에 5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등용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었다.

“등용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도서열람실과 집단 지도실, 휴게실, CCTV 등을 갖춰 도시의 어떤 공부방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2010년에는 ‘사람과 희망’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법인도 설립했다.

방학 동안에는 도시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의 청소년들은 산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좋고 산골 청소년들은 도시의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류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 자질이 갖춰져 있어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농산촌 아이들도 얼마든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이름도 개

천에서 용난다는 의미의 ‘등용 청소년 공부방’으로 정했습니다.”

공부방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 학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낮에는 절에서 수행하고 저녁이면 공부방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갔다. 평소 20~30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며 시험기간에는 60명 정도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사골학교에서 연감생성 업무도 내지 못할 외국어 고등학교와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겨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절에 찾아와 놓고 가거나 절일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생겼을 때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월공 스님은 “‘등용청소년 공부방’에서 수많은 용들이 탄생하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불교신도회, 승림사에서 템플스테이 참선, 108배 등 참여... 회원간 유대 증진 기대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 임원진들이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에서 6월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22명의 임원이 동참한 이번 승림사 템플스테이는 참선, 발우공양, 다도, 돌래길 탐방, 스님과의 대화, 108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와 회원들간 유대증진 및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승림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했다. 승림사는 익산지역 유일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난해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승림사는 또 지역 포교거점사찰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이다.

익산신도회 임원들은 잠시 승림사에 들린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월주 스님은 “신도회 임원들이 직접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의 이해 폭을 넓히고 자신들에게도 수행의 장으로 나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승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익산불교신도회 임원들의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해 표출된 소중한 의견은 차후 템플스테이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승림사 템플스테이가 지역불교문화의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근 신도회 회장은 “번잡한 속세를 잠시나마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림사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인근 송천마을의 불루베리축제와 연계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손길

민·관 복지 연대해 지역민 위한 음악회 개최

불교단체와 관공서가 연계해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과 광산구 우산동주민자치센터는 민관 복지연대 ‘투게더광산’ (회장 현고)을 발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6월 12일 열었다. 이 행사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함께했다.

이날 음악회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나눔문화공연’이라는 주제로 광주 광산구 시영아파트 잔디밭에서 열렸다. 공연에는 생명나눔 홍보가수 주권기, 문계구름, 오명자, 소리섬, 유미랑, 인디

안수니 등이 참여했다.

지역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투게더광산이 지역민들에게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만들기’를 위한 복지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특히 불교계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연계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만든 자리이다.

행사를 준비한 도제 스님은 “비록 작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열리는 지역 음악회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게더 광산은 광산구 민·관 복지연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불교신행단체 연석모임 발족

매월 정기모임... 현안 공유 및 정보 교류키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연석모임이 출범했다.

광주전남신도회(회장 지용현)와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윤림동 수자사에서 첫 모임을 6월 13일 갖고 정기적 모임을 통해 광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을 갖기로 했다.

‘(가칭)광주불교단체연석회의’란 명칭으로 출범한 이번 연대모임은 광주지

역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불교단체 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지역불교계 긴급 현안 공유와 각 단체별 공지사항 등을 진행했다.

지용현 회장은 “불교단체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가정, 불교통해 지역과 화합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잔치



빛고를 광주 다문화가족들의 마을잔치가 열렸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는 대광사에서 6월 11일 ‘다문화가족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의 전래놀이와 체육대회로 문을 열어, 줄다리기, 줄넘기, 2

인 3각 게임 등 이 펼쳐졌다. 이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오카리나 공연, 가야금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회 회장 김분옥(중국·42)씨는 “모임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한국의 전래놀이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문화가족들을 이끄는 것 외에도, 청소년 상담과 교육청의 진로상담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행사를 마련한 정선 스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2009년 1월 개소해,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가을나들이, 김장김치나누기, 다문화가족 큰잔치, 빛고를사랑운동을 비롯해, 일자리창출, 한국요리수업, 생활상담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전통악기 배우기와 어린이들을 위한 율동과 놀이교실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선원사, 무료 급식 봉사 6월 14일 부산 구서역서



‘짜장 스님’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주지 윤진)가 부산의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6월 14일 부산 구서역에서 펼쳤다. 선원사와 범어사, 화엄사, 바라밀회는 1주일에 3번 돌아가며 급식을 담당한다.

선원사 봉사자는 “ ‘스님 짜장’ 봉사를 통해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삶은 고가 아니다

10,000원 A5/287쪽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 (한글/영어)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